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2026년 가을 제72권 3호



베네수엘라,
다시 살아갈 소망이 되는 성경

 (재)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어머니의 기도로 전해진 믿음, 성경으로 전하는 복음

초기 한국교회 전도부인들은
산골 안채까지 찾아가
여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한 어머니의 열정은
한국교회 부흥의 토대와
신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140년 전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열정,
이제는 성경을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에게 우리가 응답할 때입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현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해외 성경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서공회들을 돕는 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선교회, 복지 시설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성서한국

2026년 가을 제72권 3호

- 02 포토에세이
이건 제 성경이에요!
- 04 커버스토리
베네수엘라,
다시 살아갈 소망이 되는 성경
- 08 2026 해외 성서 기증 계획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101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 10 후원 보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첫 성경을 받았습니다.
- 12 후원 보고
우크라이나 9차로 성경을 보내다!
- 14 『새한글성경』
『새한글성경』으로 만나는 창조세계
- 16 현장 이야기
불교의 땅, 스리랑카에 전해진 성경
- 19 현장 이야기
성경은 나를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끁니다
- 20 후원 이야기
- 23 대한성서공회 소식
2025 세계 성서 반포 현황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익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6년 9월 30일
- 인쇄인·인쇄처·편집 : (주)타라티피에스
- <https://www.bskorea.or.kr>
-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본지는 도서잡지 유통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현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외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 www.bskorea.or.kr



▲ 자기의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사비나(Sabina)

이건 제 성경이에요!

가나 베텔감리교회 학교에 다니며
배움에 열심인 5학년 사비나(Sabina)는
매주 어머니의 성경을 들고 교회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저마다
자신의 성경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사비나는
“저만의 성경을 갖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나성서공회가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에게 성경을 선물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두 손으로 성경을 받아 든 사비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성경이에요!”

이제 사비나는
주일마다 자신의 성경을 들고 교회에 가고,
학교 예배에도 늘 성경과 함께합니다.
사비나에게 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선물이자,
말씀을 읽고 배우며 살아갈
소중한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다시 살아갈 소망이 되는 성경

▲ 2026 베네수엘라 지진 현장

지난 6월 24일,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이 베네수엘라 북부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라과이라(La Guaira)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있던 다야나 파티뇨(Dayana Patiño)는 당시 생후 18일 된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순간 건물이 무너졌고, 모자(母子)는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왼쪽 다리가 콘크리트에 눌린 채 32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절망의 순간, 다야나는 몸 아래 무언가 놓여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기사출처: 국민일보)

“그 순간부터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는 한, 저도 살아 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 다야나 파티뇨(Dayana Patiño)



▲ 지난 7월, 줌(Zoom) 인터뷰를 통해 현장을 설명하고 정보를 요청하는 베네수엘라성서공회 총무 바우딜리오 우르타도(Baudilio Hurtado)

2026년 7월 17일 베네수엘라 호르헤 로드리게스(Jorge Rodríguez) 국회의장은 공식 자료를 통해, 6월 24일 발생한 연쇄 지진으로 사망이 5,069명, 부상이 1만 6,740명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라과이라 지역은 거주지의 60~70%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1999년,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규모 산사태, 바르가스 비극(Tragedia de Vargas)

특히 라과이라는 1999년 바르가스 비극(Tragedia de Vargas)이라 불리며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규모 산사태의 상흔이 채 아물지도 않은 곳이기에, 이번 지진으로 인한 비극은 더욱 깊은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과거의 참사를 딛고 일어나던 터전이 또다시 무너지며 주민들은 가늠하기 어려운 절망에 직면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은 베네수엘라의 팔콘 주와 발렌시아, 마라카이, 카라카스 등 인근 여러 지역 역시 건물 붕괴와 안전 문제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전역에 2만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정부와 구호기관이 마련한 100여 곳의 임시 보호소에서 힘겨운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경제난과 최근 불거진 정치적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베네수엘라는 이번 지진으로 더 깊은 절망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교회에서 한 소녀를 구해낸 카를로스 아리스멘디(Carlos Arizmendi) 목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셔서 우리를 붙드심을 압니다.”
(요 19:25)

- 카를로스 아리스멘디
(Carlos Arizmendi) 목사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다

베네수엘라성서공회는 지진 직후 '베네수엘라를 위한 연합(United for Venezuela)'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교회와 자원봉사자, 구호 단체들과 협력해 생필품과 위생용품이 담긴 구호키트 안에 성경을 함께 담아 전하는 사역입니다.



▲ 이재민들에게 전할 구호키트 작업

이 위기의 때에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옴을 믿기에, 물질적 필요와 함께 영적 양식인 성경을 전하며 가장 취약한 이재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도과 정서적 돌봄으로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성서공회 이사장 알레한드로 라세네레(Alejandro Lacenere) 목사는 이 사역의 방향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의 바램은 인도적 지원과 함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고후 4:9, 6:10)



- 알레한드로 라세네레
(Alejandro Lacenere) 목사
베네수엘라성서공회 이사장

복음에 담긴 산 소망

라세네레 목사의 고백처럼, 베네수엘라성서공회는 지금도 인도적 지원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100여 곳의 임시 보호소에서 살아가는 이재민들에게도, 다야나와 그녀의 갓난아이에게 불어넣었던 생명의 호흡, 말씀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베네수엘라 어린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이 사역을 함께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후원의 목표와 이를 통해 진행될 현지 사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배포

스페인어 성경,
어린이 그림 성경 등 총 4만여 권
(총 2억여 원)

회복 지원

지역 교회 및 이재민을
대상으로 한 성경 기반 정서 돌봄
프로그램



▲ 베네수엘라성서공회로부터 성경을 선물로 받은 알라니스(Alanis)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사 61:3-4)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이 사역은, 절망의 잔해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소망을 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한 권의 성경이 되어, 무너진 삶의 자리마다 새로운 시작을, 살아갈 소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



베네수엘라 긴급모금
후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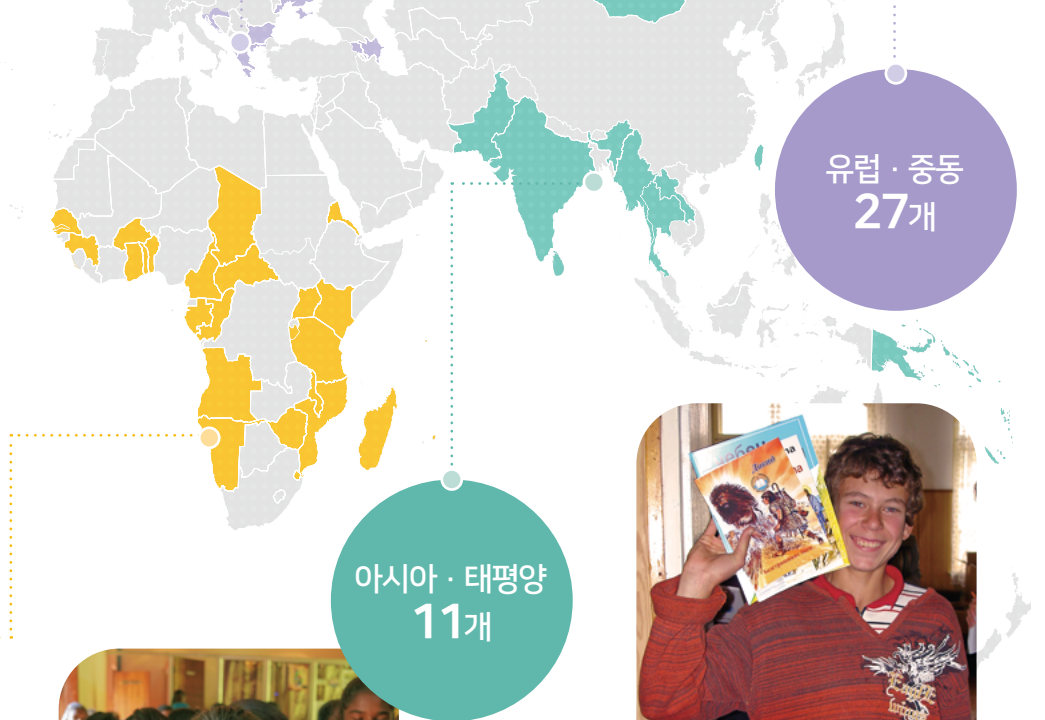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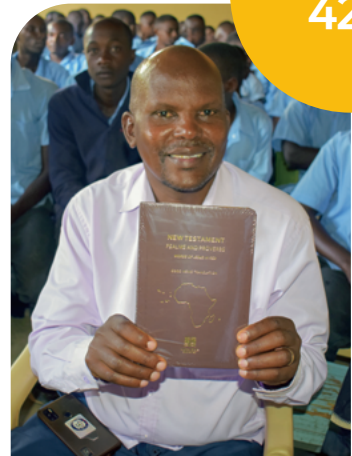
10만 원을 현금하시면 1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져 더 많은 이들에게 소망되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 후원 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101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 **짧은글씨** - 성경이 발송된 나라 (2026.08.18. 기준) / 총 869,288부 기증

*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후원하신 성경은 전 세계 미자립 성서공회들의 성경 기증 프로그램 및 성경 보급 사업 지원에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첫 성경을 받았습니다

소수부족 성경 후원, 1년의 열매

▲ 칸조발(Kanjobal) 성경을 받은 과테말라 소수부족

소수부족 성경 후원 내역

나라	기증 성경	부수
멕시코	츨(Chol) 어린이 그림 성경	10,000부
과테말라	칸조발(Kanjobal) 성경	400부
콜롬비아	나사(Nasa) 성경	7,200부
수리남	스라난 통고 (Sranan Tongo) 성경	900부
페루	아푸리막 퀘추아 (Apurimac Quechua) 성경	2,800부
가나	느제마(Nzema) 성경	555부
부르키나파소	로비이레(Lobiire) 신약	490부
남수단	모루(Moru) 성경	780부
가봉	인제비(Yinzebi) 성경	2,620부
세이셸	세셀와 크레올 (Seselwa Kreol) 성경	1,100부
보츠와나	크웨담(Khwedam) 성경	1,530부
11개국		28,375부

1년 전 가을에 진행된 소수부족 성경 후원 캠페인을 통해 11개국 소수부족 공동체에 성경 총 28,375부가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 한 권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들에게,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보내주신 사랑이 각 부족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소수 부족일수록 모국어로 된 책을 만나는 것이 어렵기에, 자신만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는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고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바로 그 기다림에 응답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페루 아푸리막 퀘추아(Apurimac Quechua) 공동체는 처음으로 퀘추아어로 성경이 완역되어, 모국어 성경을 손에 쥐며 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 페루 아푸리막 퀘추아(Apurimac Quechua) 첫 번역 성경 봉헌식

된 것은 이들에게 단순한 번역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오랜 세월 스페인어 성경으로만 신앙 생활을 이어와야 했던 이들에게, 이번 성경은 신앙의 회복이자 사라져 가던 언어와 정체성을 되살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로비(Lobi)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에게 전해진 로비이레 신약은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을 받게 되어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고, 저는 이 사실에 마음이 벅차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공동체에게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미(Jimmy) 목사/부르키나파소

이 밖에도 과테말라, 수리남, 가나, 콜롬비아, 남수단, 세이셸, 보츠와나까지 총 11개국에 성경과 신약이 전해지며, 성경이 소수부족 공동체의 신앙을 세우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열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 권의 성경을 전하는 일에 함께해 주신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영상으로 만나는
후원의 열매, 나의 첫 성경



우크라이나에 9차로 성경을 보내다!



▲ 한국교회 후원으로 9차 발송되는 '우크라이나어 성경'

지난 6월 26일,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9차 발송분 <우크라이나어 성경> 1만 4천 부를 우크라이나에 발송했습니다. 이번 발송까지 합하여 우크라이나어 성서 총 44만 6백 부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4년을 넘어서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필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피난민 지원과 긴급 구호가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오랜 전쟁이 남긴 상처를 회복하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워 가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복을 향한 여정

우크라이나성서공회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회복과 치유라고 전했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 실종되거나 포로가 된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전선에 있는

군인들의 가족들은 성경에서 삶의 의미와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테티아나(Tetiana)는 두 자녀와 함께 전쟁에 나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전선에서 돌아온 남편은 분노와 절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테티아나는 매일 저녁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며 삶을 이어 갈 힘을 얻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아파하던 가족에게 성경은 평안의 원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 속에서도 우리 가족을 붙들어 준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 테티아나(Tetiana)

더욱 커지는 말씀에 대한 갈망

최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경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전쟁 속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에겐 상실과 불안 가운데



▲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성경

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대별 성경과 묵상 자료 등에 대한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성서공회 올렉산드르 바비추크(Oleksandr Babiychuk) 총무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영원한 가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 약속이나 인간적인 확신보다 더 견고한 무언가를 찾고 있으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힘을 얻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세상의 관심이 점차 희미해지는 가운데, 9차로 발송되는 성경이 오랜 전쟁으로 지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전해져, 삶을 다시 일으키고, 공동체를 회복해 가는 여정에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우크라이나 성경 발송 내역

차수	내용	부수
1차 (2022년 4월)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176,800부
2차 (2022년 5월)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176,800부
3차 (2022년 7월)	우크라이나어 성경	28,000부
4차 (2022년 12월)	우크라이나어 성경	11,200부
5차 (2023년 4월)	우크라이나어 성경	16,800부
6차 (2024년 11월)	우크라이나어 성경	5,280부
7차 (2024년 11월)	우크라이나어-헝가리어 대조 신약 성경	1,500부
8차 (2025년 8월)	우크라이나어 성경	1,520부
	우크라이나어 어린이 성경	8,700부
9차 (2026년 6월)	우크라이나어 성경	14,000부
총계		440,600부

『새한글성경』으로 만나는 창조세계 - 생명을 다시 읽게 하는 성서 번역

송진순(한국교회환경연구소 소장)



성경은 같은 말씀이라도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학교에서 강의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개정』을 사용하지만, 본문의 의미를 깊이 파악할 때는 원어 성경을 찾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구성 하나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번역에 따라 성서가 열어 주는 해석의 깊이와 사회적 감수성이 다르기에, 다른 번역을 통해 기존의 언어 세계에서 무뎠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이를 살아 있는 말씀으로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신학과 신앙의 토대를 닦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평소 신학생들과 교인들에게 “성서를 익숙하고 낯은 언어가

아니라 살아 있는 언어로 뜨겁게 읽을 것”을 강조하곤 합니다. 새로 만난 『새한글성경』은 무뎠던 말씀의 관성을 깨고 생동감을 주는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폭염, 폭설, 홍수, 가뭄 등 이상기후가 속출하고, 수개월씩 지속하는 초대형 산불이 잦아졌습니다. 지난 6월에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40℃가 넘는 폭염으로 초과 사망자가 1만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를 단지 환경문제로 여기고, 개인이 아닌 국가 정책 문제, 혹은 기술 문제로 등한시한다면 더 큰 문제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신음하고 있는 창조세계에 귀 기울이고, 취약한 자들의 곁에 함께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생태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으로 교인들과 『새한글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21 하반절

『개역개정』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새한글성경』 다시는 내가 했던 것처럼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모든 생물’이라는 다소 개념적인 표현 대신 ‘살아 있는 모든 것’이라는 문장을 마주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새와 들짐승, 나무와 들꽃,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작은 생명들까지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향한 언약임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살아 있는 존재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처음부터 인간만의 세계가 아니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 역시 창조세계 안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언약은 그 세계 전체를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돌아보게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간, 동식물, 지구가 신음하는 현실에서 창세기의 언약은 더 이상 오래되고 낡은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창조세계를 향하고 있으며, 인간은 그 언약 안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성찰하도록 초대됩니다.

『새한글성경』은 때로는 낯선 언어이지만, 그 새로움으로 인해 독자가 본문과 대화하도록 이끍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 스스로 질문하고, 자신의 삶을 비추어보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생각을 나누게 합니다. 특히 시편은 『새한글성경』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여호와께 속한 거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도! 세계와 그 안에 사는 것들도!”(시 24:1)라는 선언은 인간의 탐욕과 무한한 성장만을 추구해 온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 세계를 맡아 살아가는 청지기임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 점에서 『새한글성경』은 단순히 다른 번역이 아니라 생명을 다시 읽게 하는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불교의 땅, 스리랑카에 전해진 성경



▲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스리랑카 가정교회 목회자

지난 4월, 본 공회는 후원교회와 함께 스리랑카에 방문하여 성경을 전했습니다. 불교 인구 약 70%, 기독교 인구 약 7%인 스리랑카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차별과 핍박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한 은혜와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필요한 교회들 -높은 곳에서 올려 퍼지는 말씀

스리랑카성서공회의 안내를 받아 방문한 차농장 캔디(Kandy) 지역. 이 곳에 위치한 베다니교회(The Bethany Pentecostal Church)는 높은 언덕을 한참 올라야 닿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보다 더 높은 것은 교회 뒤

편에 우뚝 솟은 송전탑뿐입니다. 성경 박스를 어깨에 메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다 보면, 작고 허름한 교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에서 약 150명의 성도가 주일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을 가진 성도는 세 명 중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는 어느 곳보다 깊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거기서 더 가파른 누와라 엘리야(Nuwara Eliya)에 위치한 홍차 농장 내 가정교회에도 성경을 전하러 올라갔습니다. 삼륜차에 겨우 성경을 싣고 차발 사이로 난 굽고 좁은 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 비로소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로움이 무색할 만큼, 해지고 낡은 성경을 소중히 품고 있던 한 성도의 간증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 가정교회 한 학생이 늘 가지고 다니던 낡은 성경

▲ 삼륜차(특룩이)에 싣고 가는 성경

“저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하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 파르카시(Parkash) -

성경이 필요한 목회자들 -말씀을 품고 다시 사역지로

하푸탈레(Haputale) 지역 교회에 성경을 전달하는 날, 이곳에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인근 10개 가정교회의 목회자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성경을 받아 든 목회자들은 감사와 기쁨을 나누었고, 성경이 담긴 박스를 오토바이에 싣

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에는 한 권의 성경이라도 성도들에게 더 전하고 싶은 간절함과 사명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누와라 엘리야의 성베드로교회(St. Peter's Evangelical Church) 목회자들은 모두 각자의 생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목사는 자동차 정비사로, 또 다른 목사는 농장에서 일하며 자비량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생업과 목회를 함께 감당하는 이들의 작은 섬김과 충성은 공동체 안에서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전해진 성경은 일상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선물이 됩니다.

성도들에게 전달된 대부분의 성경은 그들의



▲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스리랑카 성베드로교회 성도들

생애 첫 성경이었습니다. 스리랑카의 선교 과정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성경을 접하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스리랑카 현지 교회들과 목회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역이 힘 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일은 스리랑카 기독교의 성장에 매우 의미 있는 사역입니다.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전해지는 성경은 스리랑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 후원회원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담아 오늘도 스리랑카 땅에 생명의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더러운 물이 가득 담긴 유리병 같던 제 마음이, 말씀을 읽자 깨끗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베드로교회 청년-



현장의 감동,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성경은 나를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끎니다

▲ 선물 받은 성경을 읽고 있는 스테판(Stefan, 가명)

스테판은 알코올 중독의 늪에 빠져 있던 어느 날, 교회 입구에 마련된 성경 진열대 앞을 지나가다가 처음으로 성경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지나치려던 찰나, 그의 관심을 알아챈 한 봉사자가 스테판에게 말을 걸어 왔습니다.

스테판은 봉사자의 말을 따라 처음으로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 학교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스테판은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며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스테판(Stefan)-

세르비아성서공회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성경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며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르비아에는 말씀의 빛이 전해져야 할 곳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르비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두 손 모은 기도는 세르비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도록 돕는 귀한 동역이 됩니다. 🌐



2025년,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세르비아에 세르비아어 성경 7,808부를 전하였습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빛이 세네갈에 비칠 것입니다

주향한교회 - 세네갈 <프랑스어 성경> 1,100부 기증



▲ 성경 증정(주향한교회 정국채 목사)

2026년 6월 5일, 주향한교회(정국채 목사)의 후원으로 세네갈에 <프랑스어 성경> 1,1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주향한교회는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넘어 세계 열방을 향해 흘려보내자’는 취지로, 성도들의 부활절 헌금을 모아 세네갈 성경 보급 사역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주향한교회 정국채 목사는 “우리가 보내는 이 성경을 누군가 펼치는 순간, 하

나님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세네갈 땅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세네갈의 밭에 등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라고 성경이 세네갈에 소망의 빛으로 전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토고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이재환 장로, 이순의 권사 - 토고 <프랑스어 성경> 5,400부 기증

2026년 6월 25일, 이재환 장로(췌코원테크 대표), 이순의 권사의 후원으로 토고에 <프랑스어 성경> 5,4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재환 장로는 “선교에 대한 마음은 늘 가슴속에 품고 있었지만 직접 가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성경을 통해 선교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성경 기증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여러 매체가 발달한 우리와 달리 토고는 성경 한 권이 너무나도 귀한 곳입니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어려운 지역마다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큰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성경을 통해 토고에 일어날 복음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 성경 증정(왼쪽부터 이재환 장로, 이순의 권사, 본 공회 권의현 사장)

성경을 통해 주님의 위로를 얻을 우간다

개포동교회 - 우간다 <룬요로 루토로어 성경> 4,300부, <알루아어 성경> 4,300부 기증



▲ 우간다 성경 기증 예식에 참석한 개포동교회 성도들

2026년 7월 9일, 개포동교회(이풍인 목사)의 후원으로 우간다에 <룬요로 루토로어 성경> 4,300부, <알루아어 성경> 4,3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개포동교회는 2024년 르완다에 <킨야르완다어 성경> 5,000부, 2025년 탄자니아에 <스와힐리어 성경> 5,643부를 후원한 데 이어 올해까지, 부활절 헌금으로 전 성도의 마음을 모아 해외 성경 보내기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개포동교회 이풍인 목사는 “성경은 우리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책임입니다. 우간다의 성도들이 이 성경을 펼칠 때,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위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에 지친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간다 성도들과 교회에 위로와 믿음을 더하길 소망했습니다.

코스타리카 땅을 변화시킬 생명의 말씀, 성경

평택산성교회 - 코스타리카 <스페인어 성경> 2,500부 기증

2026년 7월 15일, 평택산성교회(김덕만 목사)의 후원으로 코스타리카에 <스페인어 성경> 2,5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평택산성교회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 성경을 보내는 후원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등 말씀으로 회복이 필요한 전 세계 이웃들을 돌아보며 매년 해외 성경 보내기에 특별헌금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 코스타리카 성경 기증 예식에 참석한 평택산성교회 성도들

이번 기증 예식에서 평택산성교회 김덕만 목사는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은 코스타리카 땅을 변화시킬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무너진 가정들을 회복시키며, 교회를 세우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코스타리카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선교의 문을 여는 성경

엘선교회 - 아이티 <아이티어 성경> 830부, <프랑스어 성경> 1,100부 기증

2026년 7월 29일, 엘선교회(회장 황현숙 장로)의 후원으로 아이티에 <아이티어 성경> 830부, <프랑스어 성경> 1,1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엘선교회는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선교사 및 세계 선교를 지원하는 연합 선교 단체로 지난해 코스타리카 성경 후원에 이어 이번에는 아이티에 성경을 보내는 사역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엘선교회 정책자문위원 정동범 목사는 “성경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박해와 제한으로 점점 좁혀져 가는 선교 지역의 문을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대안은 성경입니다.”라고 성경이 선교의 문을 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했습니다.



▲ 아이티 성경 기증 예식에 참석한 엘선교회 회원들

가장 귀한 복, 성경입니다.

창조교회 -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어 성경> 1,000부, 세르비아 <세르비아어 성경> 1,800부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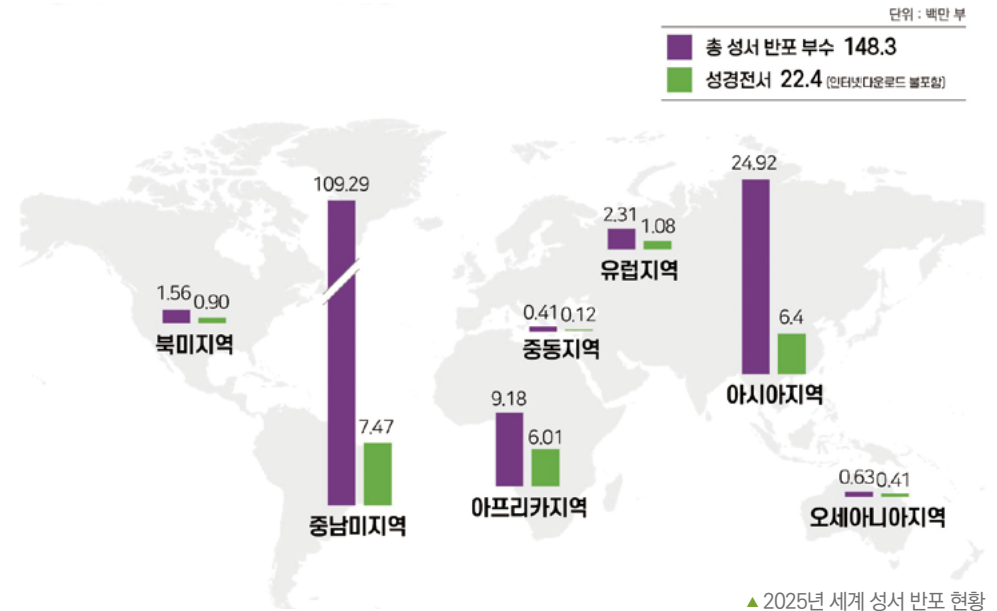
▲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성경 기증 예식에 참석한 창조교회 성도들

2026년 8월 12일, 창조교회(홍기영 목사)의 후원으로 유럽 발칸반도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에 <크로아티아어 성경> 1,000부, 세르비아에 <세르비아어 성경> 1,8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창조교회는 2013년부터 8개국에 43,153부의 성경을 보낸 데 이어, 지난해에는 성경 보급 현장을 살피고자 서발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서발칸 지역의 성경 보급 사역에 동참해 그 의미가 더욱 큼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창조교회 홍기영 목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성경입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질 때, 그 나라가 아름다운 희망의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라고 말씀 위에 세워질 서발칸의 믿음의 세대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전했습니다. ☺

2025 세계 성서 반포 현황

2025년 한 해 동안 2,240만 부 이상의 성경이 반포되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성서공회들은 2천 2백 4십만 부 이상의 성경전서를 보급하였습니다. 신약, 단편 성서와 어린이를 위한 성서를 포함하면 총 1억 4천 8백 3십만 부가 넘는 성서가 반포되었습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총무 더크 게버스(Dirk Gevers)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80년 동안 250억 부의 성경을 보급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 주는 놀라운 증거이자, 연합과 헌신이 이룬 값진 결실입니다. 인쇄 성경은 여전히 매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성경 이용도 꾸준히 증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떤 형식으로 전달되는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 권, 디지털 성경 한 장, 오디오 성경 파일 하나, 모



▲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받은 성경을 들고 있는 몽골 학생

두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라고 전하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진리,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만나도록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이끄는 성경

몽골은 1990년 이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기독교가 성장했지만, 성경 보급은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를 벗어난 교외 지역에는 교회도 많지 않고 성경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초신자들은 신앙 성장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회자들 역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제자 양육과 목회에 대한 열망 속 성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몽골성서공회는 도시와 농촌, 외딴 지역까지 성경을 보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준어 성경 번역을 진행하는 한편, 교회와 협력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알고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후원을 통해 전세계에 전해지는 성경은 말씀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 말씀 중심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기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2 전화로 가입하기

후원자 전용 전화  080-374-3061(수신자 부담)

03 직접 송금하기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재)대한성서공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070-01-0340-570

신한은행 140-009-909678

우리은행 1005-702-311166

수협은행 033-01-085327

농협은행 355-0025-0990-53

우 체 국 011916-01-000076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디모데후서 3:16~17

전쟁의 상처로 가득한 중동 지역에 위로와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세요!

“지속된 전쟁과 갈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온 힘을 다하여 이웃들에게 희망의 존재를 알리는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시리아성서공회 -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경**은
무너진 삶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재)대한성서공회

후원 문의 080-374-3061(수신자 부담) www.bskorea.or.kr

후원 계좌 농협은행 355-0025-0990-53 ▶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재)대한성서공회)